

해방 전후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 위치의 표상

심 정 보*

Representations of Korea Location in Geography Textbooks before and after 1945 Liberation

Jeongbo Shim*

요약: 이 연구는 1945년의 한국의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 위치의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에는 아시아 동부의 한반도 및 주변의 국가와 해양, 그리고 한국의 수리적 위치가 기술되었다. 둘째, 일본 식민지 시대인 1910년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는 아시아 동부의 한반도와 주변의 상황이 정태적으로 기술되었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는 한반도가 나약한 토끼 형상, 대륙진진기지, 정태적인 위치와 함께 동태적인 관계적 위치로 서술되었다. 셋째, 1945년의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수리적 위치, 우수한 위치, 한반도의 호랑이 형상, 역사적 성쇠, 자유진영의 최전선 등의 내용이 국토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다. 이처럼 해방 전후 한국의 지리교과서에는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어: 한반도, 지리교과서, 대륙진진기지, 우수한 위치, 국토의 위치와 형상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ocation included in geography textbooks before Korea's liberation in 1945 and after liberation until the 1950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countries in eastern Asia, the ocean, and the mathematical location of the Korean were described. Seco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1910 to the early 1930s, the situa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eastern Asia was described statically, but from the mid-1930s to 1945, the Korean Peninsula was depicted as a weak rabbit, a continental advance base, and a dynamic relational position with a static location. Third, from liberation in 1945 to the 1950s, the contents of the mathematical location, excellent location, the tiger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 rise and fall, and the front line of the free camp wer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territory. As such, in Korean geography textbook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he contents of the location of Korea differ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Key words: Korean peninsula, geography textbook, continental advance base, excellent location, location and shape of Korea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ktxgut@naver.com

I. 머리말

위치(location)란 어떤 한 물체의 다른 물체에 대한 자리이다. 이 자리는 대개 위도, 대륙내의 위치, 바다와의 접촉정도, 타국과의 상린정도, 타국내지 다른 지리적 목표물과의 기능적 상관정도 등에 의해 구체화되고 정확해진다. 게다가 위치는 일국의 제1차적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며, 국토규모와 함께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다(임덕순, 1997).

위치는 스케일에 따라 지리적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토의 위치는 수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로 구분된다. 수리적 위치는 경도와 위도로 표현되는 절대적 위치로 시간대를 결정하며, 기후대에 따른 농업과 문명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가변적 위치로 인접국가나 타국의 상황과 관계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국토의 수리적·관계적 위치가 면적, 거리, 형상 등과 함께 특수하게 결합되면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나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토의 위치나 형상이 지도로 표현되면 그 효과는 언어적 표현을 능가하기도 한다. 지도는 시각에 호소하여 전체성·즉시성·국제성이 우수하며, 과학성·실용성·사상성·예술성이라는 4가지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이다(橫山昭市, 2014). 그리하여 국토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와 함께 지도로 표상된다.

위치의 중요성은 국가의 교육과정에 잘 드러난다. 예컨대 1980년대 전반 미국에서는 미국지리교육학회(NCGE)와 미국지리학회(AAG)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리교육의 5대 기본개념으로 입지, 장소, 장소들내에서의 연관성, 이동, 지역을 설정했다. 여기에서 입지는 지표면상의 위치로서 절대적, 상대적 위치로 소개되었다. 한국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지리적 속성의 일반화된 지식으로 위치가 기술되었다.

국토의 위치에 대한 이해는 전근대까지 지도가 주요한 도구였는데, 근·현대에는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로 전환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에서 위치 학습은 국가나 지역 인식을 위한 기초·기본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

분야에서 국토의 위치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진수·지상현(2020)은 초기 현대 지리학에서 한국관련 지리지와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의 위치를 지형학적 입장에서 고찰했다. 권은주·김기남(2023)은 교수요목기부터 2015 교육과정에 이르는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위치 개념의 형성 과정을 3단계로 제시했다. 이들 선행연구는 특정 시기에 중점을 두어 제외된 시기도 있고, 일부 자료만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 해방을 중심으로 근대와 현대 초기에 간행된 초·중등학교의 국토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대에 따라 국토 위치의 표상이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현대 초기¹⁾는 1945년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시행된 1950년대까지를 가리킨다. 연구대상 시기를 현대 초기까지 한정된 이유는 탈식민지로서 현대 학교 교육의 토대가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이후의 학교교육은 이 시기에 형성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을 토대로 응용 및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중점을 해방 전후에 맞춘 것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격동의 시기로 교육 내용도 크게 달라져 비교교육학의 입장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해방 전후의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 위치의 표상을 밝히기 위해 당시 지리교육계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이해시키고, 어떠한 태도의 형성을 지향했는가, 그리고 해방 전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II. 해방 이전의 지리교과서와 국토의 위치

1. 개화기

한국의 교육은 전근대까지 유학에 근거하여 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화기에는 서구의 각종 제도와 문물 등이 도입되어 근대 교육의 시작과 함께 종래의 서당식 교육은 점차 쇠퇴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원산학사(1883)가 세워졌으며, 선교사들에 의한 배재학당(1885), 육영공원(1886), 이화학당(1886) 등이 설립되어 근대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ezael Hulbert, 1863-1949)는 육영공원의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1891년 『스민필지』라는 세계지리 교과서를 완성했다. 이 책은 당시 외국의 사정에 어둠던 한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순한글로 집필되었다. 교과서의 내용은 첫 부분에 지구가 간략히 소개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6대주의 각 국가 중심의 지지로 구성되었다. 아시아주의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위치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기술되었다.

대한국은동양중앙에요긴한반도국이니폭원이북위선삼십오도브르티릭삼십일도서지니남북이삼천리오동서가륙빅리며

디경을말하건디북은만주와아시아아라사요동은일본히요서는황히요남은일본히와황히가합한곳이며(호머 헐버트, 1891)

근대 한국 최초의 지리교과서에 등장하는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결하며 압축적이다. 대한민국은 동양의 중앙에 위치하는 반도국이며, 범위는 북위 35도부터 131도까지이다. 그리고 경계는 북은 만주, 동은 일본해, 서는 황해, 남은 일본해와 황해가 합하는 곳이다. 본문에는 당시 영미권 지리교과서를 참고한 흔적으로 수리적 위치와 일본해 표기가 보인다. 북위 35도는 한반도 남해안에 해당하며, 131도는 한국의 동해 바다를 지나는 경선이다. 내용의 오류는 아니지만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후 한국은 갑오개혁(1894-1895) 기간에 정부에 의한 근대교육체제가 마련되어 고종 황제가 1895년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각종 학교 법규를 제정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교과서가 간행되어 국가에 의한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895년 학부편집국은 한국인에 의한 국한문 혼용의 『조선지지』와 『소학만국지지』 교과서를 최초로 편찬했다. 조선 후기의 전통적 지역지리 서술 방식을 계승한 『조선지지』에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담, 인호(戶), 명승, 토산, 인물 등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었다. 교과서 첫 페이지에 기술된 국토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朝鮮이亞細亞洲東端에在하니東南은日本海를面하고西는黃海를臨하거니鴨綠豆滿二江이遼東과滿洲로더부러接壤하아露淸二國에隣이되니周回一萬九百二十里라(학부편집국, 1895)

조선의 위치는 아시아주 동단에 있으며, 동남은 일본해를 면하고, 서는 황해에 임하며, 북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와 청국과 경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국토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식은 당시 학부(學部)의 일본인 편집국장 다카미 우미가메(高見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 일본의 지리교과서에는 국토에 대해 수리적 위치가 사용되지 않고, 단지 주요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적 경계가 제시되고 국토 주변의 육지나 바다의 상황을 언급하는 정도로 기술되었다.²⁾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인 편집국장에 의해 『조선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일본의 일본지리나 만국지리 교과서에서 국토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식이 『조선지지』의 그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전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³⁾ 근·현대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일본의 수리적 위치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영역 확장에 주력하여 국토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고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전통으로 후술하듯이 일본 식민지기에 조선총독부 또는 민간이 간행한 지리교과서에도 한반도의 수리적 위치는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근대 지리교육의 여명기에 호머 헐버트(1891)와 학부편집국(1895)이 지리교과서를 편찬한 이래, 한국에서는 1910년 한일병합 이전까지 현재(1899)의 『대한지지』, 장지연(1907)의 『대한신지지』, 김건중(1907) 역(譯)의 『신편대한지지』, 대동서관(1908)의 『대한지리교과서』, 박문서관편집부(1908)의 『문답 대한신지지』, 정인호(1909a, 1909b)의 『최신 초등대한지지』와 『최신 고등대한지지』, 안중화(1910)의 『초등대한지지』 등의 국토지리 교과서가 민간에서 다수 간행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지리지 또는 만국지리 교과서의 한국 부분을 참고하여 내용 기술 방식이 서로 유사하다.

호머 헐버트(1891)와 학부편집국(1895)이 지리교과서를 편찬한 이래 학부의 관리였던 현재의 『대한지지』에는 국토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我大韓國位置亞細亞洲東部에在^ㄴ니支那의東北部로부터日本海와黃海渤海間에突出한半島國이라北緯三十三度十五分에起^ㄴ아四十二度二十五分에至^ㄴ고東經(英國錄威司天臺據^ㄴ흥이라)百二十四度三十分에起^ㄴ아百三十度三十五分에至^ㄴ니東은日本海를界^ㄴ며西는黃海에濱^ㄴ고南은日本海와黃海에臨^ㄴ며東南은一海峽을隔^ㄴ호日本對馬島와相對^ㄴ고北은支那의吉林省京兩省과壤을接^ㄴ호야白頭山과豆滿江으로境을劃^ㄴ며東北一隅^ㄴ은豆滿江을隔^ㄴ호야露嶺烏蘇里에接^ㄴ고…(현재, 1899).

현재(1899)는 대한국의 위치를 종래 요긴한 반도국(호모 할버트, 1891)에서 돌출한 반도국으로 표현했으며, 그 외에 한국과 주변 국가와의 자연적 경계 및 바다를 접하고 있는 상황을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수리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은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러한 내용 기술은 현재가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지리지를 참고한 결과이다.⁵⁾

현재(1899)를 비롯한 모든 교과서 저자들은 국토의 위치를 아시아주 동부에 있다고 기술했으며, 돌출한 반도국이라는 표현은 현재(1899), 장지연(1907), 김건중 역(1907), 대동서관(1908) 등의 교과서에 나타난다. 게다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경계 및 바다를 언급한 것은 현재(1899)의 내용 기술과 대동소이하다. 즉 북쪽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청국의 만주 및 러시아와 경계하며, 서쪽은 황해를, 동쪽은 일본해 등의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기술은 일본 식민지기와 현대 초기의 지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반도의 수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현재(1899)가 북위(北緯) 및 동경(東經)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래 다른 저자들도 그것을 교과서에 제시하기 시작했다. 대체로 북위는 33도~42도 또는 43도 사이, 동경은 124도 또는 125도~130도 사이로 기술되어 정확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국토의 4방위 끝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장지연(1907)은 4극으로 극남·극북·극동·극서를, 김건중 역(1907)과 안중화(1909)는 동단·서단·남단·북단을 사용하여 한반도의 영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했다.

장지연(1907), 김건중 역(1907), 조종만(1907), 정인호

(1909), 안중화(1910) 등은 국토의 4극 또는 4단으로 동은 울도군 울도, 서는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남은 제주도 모슬포, 북은 함경북도 두만강으로 기술했지만, 장지연(1907)과 김건중 역(1907)은 극동을 두만강 입구로 나타내었다. 게다가 장지연(1907)과 김건중 역(1907)은 4극의 수리적 위치로 극동 동경 130도 58분, 극서 동경 125도 5분, 극남 북위 33도 46분, 극북 북위 43도 2분으로 표시하여 전국이 북온대에 속한다고 기술했다. 이들 교과서에 제시된 국토의 수리적 위치 및 4극에 대한 기술을 현실과 비교하면, 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그 이유는 저자들이 일본에서 간행된 부정확한 한국의 지리지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지연(1907)과 김건중 역(1907)의 4극에 대한 기술은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1905)의 『한국신지리』에 기술된 위치의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학부편집국(1895)의 『조선지리지』와 통감부의 관여로 학부(1907)가 편찬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으로 일본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저항적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이 명칭 표기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국토의 위치를 기술하면서 현재(1899)와 장지연(1907)은 여러 명칭으로, 조종만(1907)과 대동서관(1908)은 대한해로, 박문서관(1908)은 창해로 표기했으며, 정인호(1909a, 1909b)와 안중화(1910)는 바다 명칭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부분 교과서 집필자들은 일본의 자료를 참고했지만, 민족의식과 자주성을 지키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개화기에 간행된 지리교과서에 국토의 위치 관련 내용은 주로 아시아주 동부에 있는 반도국, 한반도의 경계와 주변국 사이의 바다, 수리적 위치 등이다. 비록 수리적 위치는 현실과 비교하면 정확성이 결여되었지만, 집필자들은 수리적 위치를 교과서에 표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 영역을 명확히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국토 위치에 대한 기술 경향은 내재적 목적에 입각하여 당시 학습자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의 자연적 환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태적 이해를 지향한 것이다.

2. 일본 식민지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받아 개정되었다. 지리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은 조선총독부 편찬, 그리

고 중등은 조선총독부 및 민간에서 간행된 것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부터 지리교과서 및 지리부도에 조선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일본의 한 지방으로 다뤄졌다.⁶⁾ 당시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조선지방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돌출한 반도

초등 단계의 보통학교에서는 한일병합 이전까지 지리 역사라는 과목이 존재했지만, 1911년 조선총독부령 보통학교 규칙에 지리와 역사 과목이 제외되었다. 중등 단계의 고등보통학교에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 고등보통학교 규칙에 의해 역사와 지리 과목을 교수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는 고등보통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1914년 『일본지리교과서』와 『일본지리교과서부도』를 편찬했다. 조선총독부(1914)의 『일본지리교과서』는 조선지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본문의 「제2 대일본제국」의 일본의 위치, 「제13 조선지방」의 조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아세아주의 동부에 위치하고, 대소 수천의 도·서(嶋·嶼)와 하나의 반도로 이루어진다. 이 도서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져 그 길이 대략 1천 2백리이며, 반도는 즉 조선으로 많은 속도(屬島)가 있다(朝鮮總督府, 1914).

조선지방은 혼슈의 서방에 돌출한 반도 및 많은 속도로 이루어져 지형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다. ... 장백산맥 및 압록강·두만강 2강으로 만주와 경계하며, 두만강의 하류로서 로령(露嶺) 연해주와 연속하며, 동은 혼슈와 함께 일본해를 둘러싸고, 서는 황해에 임하며, 남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쓰시마와 서로 마주본다. 해협의 서를 조선해라고 한다(朝鮮總督府, 1914).

조선총독부(1914)는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에게 일본을 우리나라로 인식하도록 기술했다. 아울러 일본은 아시아 동부에 위치하여 많은 섬과 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도는 조선으로 일본의 일부임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일본을 향해 돌출한 반도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20세기 전후 일본에서 위협으로 인지하여 조선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⁷⁾ 조선의 주변 위치에 대해서는 대륙 국가들과의 자연적 경계, 한반도 3면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 등이 정태적으로 기술되었다.

1920년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제1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보통학교에서 일본역사와 지리를 정식 과목으로 신설했으며, 교과서는 문부성 편찬 『심상소학지리서 권1·권2』를 사용하도록 했다. 1922년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으며, 보통학교 지리과 교수 요지에 조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교수하도록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1923)는 『보통학교지리보충교재 아동용』을 편찬하여 조선지방의 지리를 보충하여 가르치도록 했다. 이 책은 크게 지방지와 총설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의 위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지방은 일본해와 황해와의 사이에 돌출한 긴 반도로 서 북은 백두산 및 두만강·압록강으로 만주·러시아령 연해주와 경계하며, 남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내지와 서로 마주한다(朝鮮總督府, 1923).

이후 조선총독부는 1929년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 규정을 개정했으며, 교재 선택의 방침으로 향토의 실세에서 시작하도록 했다.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는 교육의 향토화를 지향하여 조선의 실정에 적합한 『초등지리서 권1·권2』, 『초등지리서부도』를 각각 편찬했다. 이 교과서의 권1에는 조선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조선지방은 일본해와 황해와의 사이에 북에서 남을 향해 뻗어나온 반도로 길이 약 1천 킬로미터, 북은 압록강·두만강 및 백두산으로 만주와 시베리아를 경계하며, 남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규슈지방과 마주보고 있다(朝鮮總督府, 1932).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보통학교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조선의 위치는 개화기의 국토지리 교과서 및 조선총독부(1914)의 『일본지리교과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더 간략한 편이다. 즉 혼슈 서방에 돌출한 반도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거나 뻗어나온 반도로 표현되었다. 북은 백두산과 두만강·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와 경계를 이루고, 남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한다는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이처럼 1930년대 전반까지 지리교과서에서 조선의 위치에 대한 기술 경향은 개화기와 동일하게 내재적 목적으로 정태적 이해를 지향했다.

2) 동아시아의 좋은 위치와 토기 형상의 한반도

1930년대 중반 향토교육의 융성으로 식민지 조선의 실정을 고려한 중등학교 지리교과서가 간행되었다. 그것은 도요가와 젤요(豊川善暉)의 『향토조선지리』로 보통학교에 이어 한 단계 높은 조선지리의 일반을 교수하기 위한 보충교본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고등보통학교는 일본에서 간행된 검정 지리교과서를 들여와 사용했는데, 조선 부분은 너무 간결했기 때문에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간행되었다(豊川善暉, 1935).

이 책에는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를 조사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위치가 좋으면 면적은 좁더라도 가치가 크며, 위치가 나쁘면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가치가 부족하며,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기술되었다. 교과서 본문에 기술된 조선의 위치는 이전의 다른 지리교과서보다 내용이 풍부해졌다. 교과서 본문에는 국토의 위치를 최초로 시각적으로 표시한 동아의 잔교(架橋) 조선반도(그림 1)라는 지도, 인문현상과 관련된 동태적 위치,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태적 위치가 함께 기술되었다. 조선의 위치에 대한 동태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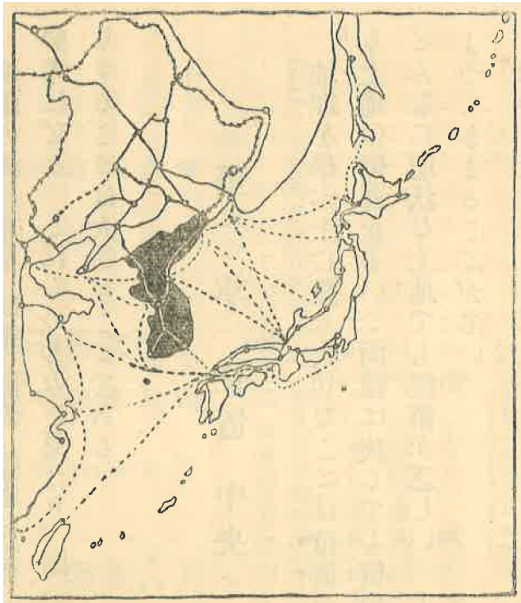


그림 1. 동아의 잔교(架橋) 조선반도
자료: 豊川善暉(1935)

조선은 내지, 만주, 지나, 동부시베리아의 중앙에 있으며, 이들의 문화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 게다가 조선은 시베리아에서 일본으로 통하는 세계교통의 대간선에 해당하며, 하나의 커다란 잔교(架橋)와 같이 일본해와 황해 사이에 돌출하여 아세아 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연락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한다. 금후 우리나라의 대륙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의 위치는 점점 그 중요함을 더할 것이다. 조선의 지리적 특색은 주로 그 위치가 좋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豊川善暉, 1935).

저자는 다이나믹한 조선의 위치 지도를 확대해서 교과서 표지로도 사용했으며, 본문에서 위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조선의 위치가 좋다는 점을 지리교과서에서 최초로 역설했다. 그 이유는 종래의 교과서 기술에 나타나는 아시아 동부에 정적 상태의 위치에서 조선이 주변 국가 및 지역의 중앙에 있다는 것, 문화의 중심에 가깝다는 것, 동아시아 교통의 큰 줄기가 된다는 것,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 등으로 일본의 대륙 발전에 조선의 중요성은 더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교과서 본문에는 보충 설명으로 조선의 위치는 교통상, 경제상, 군사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상으로 과거 반도는 원군(元軍)의 근거지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에 조선은 통로 길이 되었고, 근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우선 조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등의 사례를 들어 조선의 위치가 중요하고 좋다는 것을 역설했다. 조선의 위치로서 교통상, 경제상, 군사상 등의 용어에는 사람·물자·자원·정보의 이동이나 움직임과 관련된 동태적 성격이 내포되었다.

계속해서 교과서 본문에는 종래 조선총독부의 지리교과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태적인 조선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조선의 4경(四境)은 내지, 만주, 지나, 동부시베리아와 접해 있다. 즉 남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코쿠, 규슈의 요지를 마주하며, 북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신흥 만주국과 경계하고, 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북지나대륙을 향하며, 동은 두만강 하류로서 로령(露嶺) 블라디보스토크 지방과 마주하고 있다(豊川善暉, 1935).

저자는 종래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 대륙에서 돌출한 반도, 일본해와 황해 사이에 뻗어나온 반도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방위의 경계와 국가 및 지역과 마주하는 상황을 언급하는 기술 방식은 이전의 지리교과서와 유사하다. 그런데 저자는 종래의 기술 방식과 달리 조선의 위치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위치에 좋다는 표현의 가치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래서 조선은 전체로서 위치는 좋은데 중앙과 지방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의 경성은 모든 방면에 대해서 평등하게 위치가 좋고, 여기에서 남부조선은 내지, 남지나 및 남양방면에 대해서 위치가 좋고, 서선지방은 남만주 및 북지나지방에 대해서 위치가 좋고, 북선지방은 북만주 및 로령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에 대해서 위치가 좋다. 모든 사업을 일으키기에는 그 땅의 위치가 좋고 나쁨을 연구해서 관련시켜야 한다(豊川善暉, 1935).

저자는 전체적으로 좋은 조선의 위치를 다시 중앙과 지방으로 세분하였다. 경성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고, 남부조선은 남쪽에 위치한 지역, 서선지방은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 북선지방은 북쪽에 위치한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므로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의 위치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교과서의 「제4장 지세」 부분에는 한반도의 산맥순곽도를 제시하여 한반도의 형상을 이해하고 태도의 형성을 지향했다(그림 2). 교과서에 조선반도는 만주 남동부의 산지로부터 『ㄱ』 자형에 남으로 뻗어 전체의 형상은 서쪽을 향하여 뒷다리로 서 있는 토끼를 가장 닮았다고 기술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에 따르면 평안북도는 토끼의 머리이며, 평안남도는 목에 해당하며, 황해도는 앞다리이며, 전라남도는 뒷다리가 되며, 함경남북도는 그의 긴 귀이며, 강원도에서 경상도에 걸쳐서는 어깨에서 등(脊)을 이루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호미곶(長鬚岬)이 토끼의 짧은 엉덩이 꼬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끼의 척추에 해당하는 곳은 태백산맥의 산골(山骨)이 되어 있고, 늑골(肋骨)에 해당하는 곳에 여기에서 서남을 향해 평행하게 달리는 마식령,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의 산맥이 있으며, 살(肉)



그림 2. 지세 개요
자료: 豊川善暉(1935)

에 해당하는 곳은 대체로 서안평야가 있어 산업이 발달하고, 철도는 혈관과 같이 평북의 신의주에서 경남의 부산으로 달리며, 경성은 심장의 위치에 해당한다. 또한 토끼가 향한 앞방향이 표조선(表朝鮮)이며, 등(脊) 쪽은 리조선(裏朝鮮)이다(豊川善暉, 1935).

이 내용은 한반도의 지형 및 형상을 토끼에 비유한 것이다. 저자는 한반도의 북부, 중부, 남부 지방에 위치한 각도(道)가 토끼의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가를 기술하고, 국토 전역에 걸쳐 있는 산맥, 평야, 산업, 철도 등도 토끼의 몸에 빗대어 설명했다. 한반도가 토끼와 닮았다는 것은 근대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 1856-1935)가 1900년부터 1902년까지 한국 전역을 2회 답사하고, 그 내용이 1903년 『동경제국대학기요』에 영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이탈리아의 외양은 구두를 닮았다. 조선의 외양은 서 있는 토끼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는 뒷다리, 충청도는 앞다리, 황해도와 평안도는 머리, 함경도는 비레에 맞지 않는 커다란 귀,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경상도는 어깨와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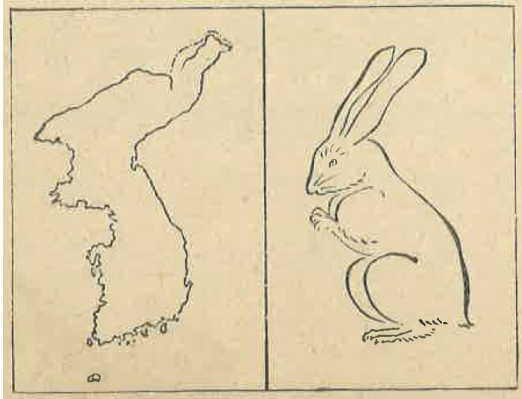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의 형상

자료: 寶文館編輯所編纂(1910)

이후 이 내용은 야즈 쇼에이(矢津昌永, 1904)의 『한국지리』⁸⁾를 비롯하여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1905)가 집필한 『한국신지리』⁹⁾에 기술되었다. 게다가 소학교의 지리교재로서 보문관편집소편찬(寶文館編輯所編纂, 1910)의 『심상소학화태만주조선지리 부 외국지리대요』에도 「제2 조선」 단원의 위치에 “조선은 아세아 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일본해와 황해와의 사이에 돌출해 있는 일대(一大) 반도로 북은 만주, 아세아 러시아(露西亞), 동은 일본해, 서는 황해, 남은 조선해협이다. 이 조선의 형상은 마치 토끼가 서쪽으로 향한 것 같다”는 기술과 함께 조선의 형상 지도가 수록되었다(그림 3). 고토 분지로의 한반도 토끼형상론은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지리와 그들의 지리교과서에 수록되어 내용이 재생산되고, 그러한 인식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이러한 내용은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의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

이처럼 지리교과서 저자들은 고토 분지로의 사고방식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리교육에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은 토끼처럼 나약한 존재이므로 강국 일본의 보호 및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국토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애국하는 인간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저자는 본문에서 조선의 위치가 좋다는 것을 칭송하면서도 그 발전은 일본에 의해 가능하며,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일본의 대륙발전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중반부터 국토의 위치에 대한

기술 방식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그리고 구미 제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태평양전쟁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리교육자들은 일본정신의 고양에 주목했다. 일본정신이란 타국에 볼 수 없는 일본의 특별한 정신을 가리킨다. 지리교육자들은 이러한 일본정신을 강조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 정신을 만들어 내는 국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일본의 국토를 특별한 것으로 파악하는 자연관이 생겨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에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林潤平, 2020). 국토의 위치는 국토애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 이래 지리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국가주의 정체성을 육성하도록 특별함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국토의 위치, 지형, 형상, 자연 등에 주목했던 것이다. 국토애에 관한 교육론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보다 심화된 시기는 1940년대 전반 국민학교기의 지리교육론이다.

3) 대륙전진기지

1941년 3월 조선총독부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했으며, 국민학교 규정의 국민과 지리의 목적은 “우리 국토 국세 및 제외국의 정세에 대한 그 대요를 회득시켜 국토 애호의 정신을 기르고 동아 및 세계에 있어서 황국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국토애호의 정신은 국토를 영원히 수호하고, 드디어 광휘(光輝)를 발양(發揚)하려는 감정 즉 국방의 실천과 전쟁의 승리를 지향하는 의식이다(林潤平, 2020).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1944)는 전시에 대비하여 『초등지리 제5학년·제6학년』이라는 혁신적인 지리교과서를 편찬했다. 새로운 교과서의 문장 표현과 내용 기술은 종래 소학교 『초등지리 권1·권2』의 ~이다·~였다 등의 문어체가 아닌, ~입니다·~합니다 등의 경어체와 구어체 표현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마치 ~와 같은·꼭~처럼 등의 대화체와 비유표현, 그리고 ~해 보세요·~를 조사해 봅시다·를 바라봅시다 등의 지시 표현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지루하고 딱딱한 지리교과서가 아닌, 친근한 지리교과서를 의도한 것이다(심정보, 2015). 이 책에는 국토와 관련하여 일본과 도쿄 중심의 대동아, 조선의 위치와 형상 등의 내용이 종래와는 다른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조선총독부(1944)의 『초등지리 제5학년』은 일본 중심의 지리로 종래 획일적인 지방별·항목별 내용 구성의 정태지리에서 탈피하고, 주제 중심의 중점주의 및 동태지리로 편성되었다. 전체적인 일본의 위치는 대단원 「1 일본의 지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일본의 지도를 펴 보세요.

우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부근에 있는가를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전체에서 보아 북쪽에 있는가, 서쪽에 있는가, 또한 한 중간인 곳에 있는가 등에 주의 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일본 전체의 형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평양상 북동에서 남서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는 섬들이 일본열도이며, 그 중에는 커다란 섬과 작은 섬이 늘어서 있습니다. 커다란 섬에는 어떤 섬이 있는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해 봅시다. ...

북의 치시마(千島)열도, 중앙의 혼슈, 남의 류큐열도가 각각 태평양을 향하여 활(弓) 모양으로 내밀고 있는 상태는 일본열도 전체를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형상에서 우리들은 무엇인지 강한 힘이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열도는 평범한 형상이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의 전면에서 서서 태평양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상상되고 동시에 또한 태평양에 대하여 대륙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열도와 아시아 대륙과의 사이에 있는 바다와 해협을 조사해 봅시다. ...

일본해와 동지나해 사이에 있는 조선반도는 만주와 땅이 이어져 마치 우리 본토와 대륙과의 사이에 놓인 다리처럼 예부터 우리나라와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의 남쪽에 있는 조선해협은 우리나라와 대륙과의 연락상 특히 중요합니다. ...

우리 국토가 대륙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대륙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하듯이 고래(古來) 우리나라는 교통과 문화상으로 대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한 금후 점점 국민이 대륙의 여러 지방으로 발전하는데 형편이 좋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토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라면, 아마 대륙과 같은 깊은 관계는 맺어지지 않았겠지요. ...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국토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신대(神代)의 옛날부터 바다의 영혼에 의해 보호 육성되고, 또 대륙에 가까이 접하여, 그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 왔던 우리나라는 바다로 육지로 뻗어나가는 사명을 원수하기에 어울리는 위치를 점하고, 그 형상도 자유롭게 사방으로 향해 손발을 뻗어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도 좋고 형상도 좋아 유례없이 국토에 혜택을 받은 우리 일본은 참으로 신이 창조한 나라인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朝鮮總督府, 1944).

이 대단원의 내용은 일본지리 학습의 입문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는다. 지도 위에서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국토의 전체적인 형상과 위치 등을 교사와 아동이 함께 조사하는 수업 방식이다. 교과서 본문에는 별도로 위치나 형상 관련 지도를 수록하지 않았지만, 초등지리 부도나 패도, 지구본 등을 통해 조사하는 것은 아동에게 국토의 여러 가지 특색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함이다(文部省, 1943). 저자는 아동들이 지리교과서 밖의 여러 지도를 조사함으로써 일본의 다양한 지리적 특색을 머리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위치와 형상에 대한 기술은 종래 자연적 경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나 바다를 소개하는 방식의 정태적 위치 파악 이외에 동태적인 관계적 위치가 더해졌다. 주요 내용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세계 제1의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분포하는 지역과 해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일본열도는 단순히 평범한 형상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 활 모양으로 뻗은 상태,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태평양에 대해서는 대륙을 지키는 모습으로 전체를 긴장시키고 어떤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일본열도를 특별한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인상(예컨대 팽팽한 긴장감 혹은 비약이나 약진을 연상시키는 동적인 느낌 등)에서 직관력이 풍부한 아동의 머리를 움직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상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대했다(文部省, 1943).

바다로 육지로 뻗어간다는 위치는 전쟁에 의한 세력 확대를 시사하는 것이다(林潤平, 2020). 그리고 형상이 태평양을 향한 활과 같다는 것은 침략지인 태평양 지역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숙명적인 실천적 태도가 내포되었다. 게다가 일본의 위치와 형상은 우수하며, 그것은 신(神)이 창조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국토상에 대한 특별

함이 엿보인다. 국토의 특별한 상징적 요소는 아동들에게 신격화된 천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의 형성을 지향한 것이다.

한편 일본 국토의 전체에서 조선은 일본 본토와 대륙과의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아 예부터 양자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그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대단원 「11 조선」에도 조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4). 나아가 조선의 위치로서 대륙발전의 기지가 등장한다. 당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륙발전기지와 대륙발전기지라는 지정학 용어가 혼용되었다.

조선은 일본해와 황해와의 사이에 내지와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이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반도입니다. ... 북은 만주와 시베리아와 땅이 이어지고, 또 북지나와 몽강(蒙疆)과 가깝고, 남은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내지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대륙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 대륙발전의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조선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토지가 높아지며, 북부는 넓은 고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경에 있는 백두산은 이 고원에 높이 솟아있는 화산으로 화산이 적은 반도에서는 드물게 큰 것입니다. 산정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만주와의 국경을 구불거리면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압록강은 만주와 러시아의



그림 4. 조선의 위치
자료: 朝鮮總督府(1944)

국경을 이루며 일본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朝鮮總督府, 1944).

한반도의 중요성은 “이 조선반도라는 발판(足場)없이 우리 대륙정책은 없다”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의 주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隈江信光, 1941). 그리고 국민학교 국민과 지리교육의 방침 가운데 하나는 대륙전진기지로서 조선의 지위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朝鮮總督府, 1941). 교과서에 조선의 위치는 종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적 경계로서 만주와의 국경을 형성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기술되었다. 그리고 한반도는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이 남북으로 뻗은 반도 즉 대륙발전의 기지로 보았다. 기지는 전쟁터나 적대국 가까이 있으면서 군사작전 수행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임덕순, 1997). 따라서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병참지 구실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서에는 종래 단순히 아시아 대륙에서 남북으로 돌출한 반도가 아닌, 일본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깊은 관계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문에는 대륙발전기지와 관련하여 조선의 위치가 다른 측면에서도 기술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륙발전의 기지로서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을 갖추어 싸우는 우리나라 전력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진은 실로 천황의 위광(御稜威) 아래 역대 조선총독을 비롯하여 지도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훌륭한 지도를 베풀고 또한 여기에 응하여 사람들이 주야 열심히 계속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조선이 금일과 같이 빛나는 발전을 이룬 것을 깊게 명심하여 조선이 우리나라의 대륙전진기지로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한층 더 힘씁시다(朝鮮總督府, 1944).

조선총독부는 태평양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민지 조선을 대륙발전의 전진기지 혹은 병참기지로서 그 지위와 사명을 강조했다. 식민지 조선의 빛나는 발전, 즉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의 지도 덕분이며, 앞으로도 대륙전진기지로서 사명 완수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게다가 본문의 다른 페이지에는 전쟁 수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 이외에 지하자원, 군수물자 등의 생산기지로서

그리고 이들 생산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교통기지로써 중요성이 기술되었다.

국민학교 국민과 및 지리의 목적을 고려할 때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위치 인식을 비롯하여 그 지위와 사명을 강조한 것은 국방과 관련이 있다.¹⁰⁾ 즉 가까운 장래에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협력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지향한 것이다. 결국 1940년대 전반 태평양전쟁기의 국민학교 지리교육에서 국토의 위치 학습은 동태적 이해와 태도 및 의식 형성에 주목했는데, 그것은 지정학 사상의 영향으로 지리교육이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 크게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해방 이후 현대 초기의 지리교과서와 국토의 위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교육은 미군정에 의해 종래 천황제 중심의 군국주의 교육이 폐지되고, 민주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초·중등학교의 지리 과목은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새로운 교과로서 사회과(social studies)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의 지리교과서에서 국토의 위치에 대한 기술은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현대 초기의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국토 위치의 특성을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해방 이후 한국에서 미군정청은 국민학교 5·6학년용 지리교재를 1946년 2월경에 완성하여 각 도의 학무과로 보냈으며, 각 도의 학무과는 이 원고를 간행하여 국민학교에서 임시 지리교재로 사용하도록 했다(심정보, 2019). 전후 한국에서 간행된 국민학교 최초의 지리교과서는 1946년 5월 전라북도학무과가 간행한 『초등 지리교본 오륙학년용』이다. 이 책은 해방 이후 초등 단계에서 지리 명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교과서는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과정이 공포되기 전에 간행된 초등지리 임시교재로서 내용은 국토지리 중심이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지리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다. 본문은 총 16 단원으로 지역지리는 중선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 서선지방, 북선지방이며, 나머지는 지도, 지형, 기후, 산업 등의 계통지리로 구성되었다.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1 우리나라의 지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세아주 동북쪽에 있어, 서에는 황해(黃海)를 거쳐서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있고 동에는 동해(東海)를 건너서 일본열도(日本列島)가 있는 사이에 태평양(太平洋)을 향하여 크게 동남으로 뻗어나온 반도국이다. 다시 말하면 서북에 아세아 대륙을 등지고, 동남에 태평양(太平洋)을 건너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나라이다. ... 위도는 북위 삼십 삼도에서 사십 삼도 사이에 있으므로,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온대 지방에 있어 예로부터 문화가 발달되어왔다(전라북도학무과, 1946).

이 내용은 교과서 첫 페이지에 국토학습의 기초로서 국토의 위치를 다룬 것이다.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1944)의 『초등지리 제5학년』과 같이 지도를 제시하지 않고 국토의 위치를 기술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 기술은 확연히 다르다. 즉 수리적 위치를 제시하고, 아시아 동부에 위치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을 정태적으로 기술한 것은 개화기와 1930년대 전반까지 간행된 지리교과서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동태적 측면에서 대륙전진기로서의 위치와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교과서 집필자는 일본 지정학 사상이 유행했던 시기의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국토의 위치 기술 방식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군정청 문교부(1946)는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 (4)』를 고시하여 사회생활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사회생활과의 영역은 지리, 역사, 공민으로 학년별 내용은 1학년 가정과 학교, 2학년 고장 생활, 3학년 여러 곳의 사회 생활, 4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5학년 다른 나라의 생활, 6학년 우리나라의 발달로 환경확대법에 따라 편성되었다. 교수요목집에 근거하여 문교부는 사회생활과 교과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국토의 위치는 문교부(1948)의 『사회생활과 4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1)』에서 지도와 함께 내용이 기술되었다. 본문의 「I. 우리 나라의 위치와 구분」에 제시된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동쪽에 뻗은 반도인데, 북쪽은 중국의 만주(滿洲)와 소련의 시베리아와 연결하였고, 동, 남, 서쪽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동 쪽에는 동해(東海)가 있고, 남 쪽 바다를 넘어서는 일본 열도가 늘어서 있고, 서 쪽은 황해(黃海)를 건너 중국과 마주 보고 있다. 이런 반도라는 위치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민족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나라 중에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바다가 어떠한 것인 줄 모르는 나라도 있다. 그와 반대로,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섬(島) 속에만 있어, 대륙의 어떠한 것인 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 같이, 그 섬 밖에는 모르는 곳도 있다. 우리 조선반도는 바다의 좋은 점과 대륙의 이로운 점을 다 맛보고 있다. 그러나, 이롭지 못한 점도 있으니, 대륙에 무슨 강대한 세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노리고 탐내고, 해양 쪽에 세력이 센 나라가 일어나면 역시 우리 반도를 탐내고, 여기를 근거 삼아,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성에 사대주의 사상, 혹은 의타성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환경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시달림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연의 자극으로 생각하고, 항상 긴장하여 자주적 정신을 가지도록 하자(문교부, 1948).

이 내용을 종래 전라북도학무국(1946)의 교과서에 기술된 국토의 위치와 비교하면 비록 수리적 위치로서 위도는 제외되었지만, 아시아 동쪽에 뻗은 반도와 그 주변의 자연적 상황을 기술한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그림 5. 우리나라 위치
자료: 문교부(1948)

나라 위치라는 지도가 제시되었고, 국토의 위치로서 반도의 장점과 단점, 민족성, 자주적 정신 등이 새롭게 언급되었다. 문교부는 아동들에게 국토 위치의 자연적·정태적 특성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장단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자주적 정신이라는 태도의 형성을 지향했다. 국토의 위치를 제시한 지도도 종래 조선총독부(1944)의 일본과 도쿄 중심이 아닌, 한국과 서울 중심으로 바뀌었다(그림 5). 결국 문교부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위치적 숙명론이나 환경결정론을 뒤돌아보고, 탈식민주의로서 항상 주변 강국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긴장해서 환경가능론적 사고를 갖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문교부(1955)는 제1차 『국민학교 교과과정』을 공포했다. 국민학교 사회생활과는 제1학년 우리 집 우리 학교, 제2학년 이웃 생활, 제3학년 고장 생활, 제4학년 우리 생활의 내력, 제5학년 산업의 발달, 제6학년 우리 나라의 발전과 세계 등으로 편성되었다. 문교부(1956)는 제1차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편찬했으며, 국토의 위치는 『사회생활 41』에 등장한다. 이 책의 본문은 종래 문어체 중심의 서술 방식과 달리 아동과의 대화 및 문답 형식으로 바뀌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국토의 위치에 대한 지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를 등지고 서해를 건너, 중국 땅을 바라보며, 남북으로 길게 놓여, 아시아 대륙의 한쪽에 붙썩 솟은 듯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땅모양에 대한 공부를 마친 효성이는, 이웃 나라가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다리 같기도 하고, 태평양 쪽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오는 대문과도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침입하여 오려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세력을 막아 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문교부, 1956).

1950년대의 교과서에 기술된 국토의 위치는 이전의 교과서보다 간결하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다리와 같고,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표현은 해방 이전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반면 현실의 새로운 과

제로서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방어해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로 기술되었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위치를 제시한 지도는 이전의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와 달리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그림 6).

대한민국은 이론물리학의 장(field)과 같이 주변국 역선(power line)의 강약에 따라 성격이 부단히 변화하는 공간과도 같다(임덕순, 1997). 교과서에서 국토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내용 기술은 아동들에게 지도를 바라보면서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주변 세력을 수호해야 한다는 태도의 형성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해방과 국토분단 및 한국전쟁 이후에 교과서에서 국토의 위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과제는 종래 일본 제국주의에서 북한 공산주의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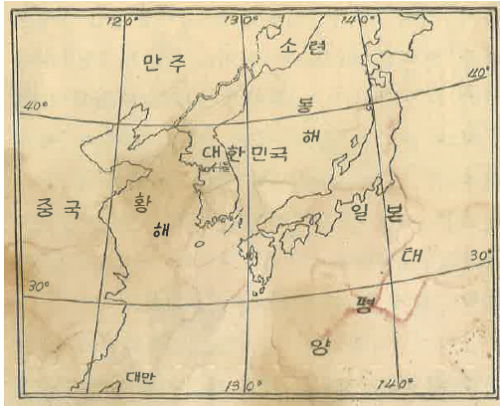


그림 6. 우리 나라의 위치
자료: 문교부(1956)

2. 중등학교

해방 이후 중등학교의 지리 과목은 국민학교와 동일하게 시민의 육성을 지향하는 사회과에 포함되었다. 문교부는 1948년에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을, 1955년에 제1차 『중학교 교과과정』을 고시했다. 이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여러 종류의 검정 지리교과서가 간행되었

표 1. 현대 초기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의 위치 관련 내용 요소

시기	저자(연도)	반도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위치 지도
				위치의 우수성	역사적 성취	자유진영의 최전선	
교수 요목기	정홍현 외(1946)	○	○	-	-	-	-
	육지수(1947b)	○	○	○	○	-	○
	정홍현 외(1949)	○	○	-	○	-	-
	노도양(1949)	○	○	-	○	-	-
	정 갑(1949)	○	○	-	○	-	-
	최복현 외(1949)	○	○	-	○	-	-
	박노식(1950)	○	○	○	○	-	○
	이부성(1950)	○	○	-	○	-	○
제1차 교육과정	육지수(1950)	○	○	○	-	-	○
	강대현 외(1956)	○	○	-	○	○	○
	김상호(1956)	○	○	-	○	-	-
	박노식(1956)	○	○	-	○	○	○
	안충산 외(1956)	-	○	-	○	○	○
	육지수(1956)	○	○	○	○	-	○
	이봉수(1956)	○	○	○	○	-	○
	이지호(1956)	○	-	-	○	-	○
	최복현(1956)	○	○	-	○	○	○
	최홍준(1956)	○	○	○	○	-	○
	강재호(1957)	○	○	-	○	○	○
장창균(1957)	○	○	○	○	-	○	

자료: 교과서에서 필자 작성

다. 현대 초기 한국인이 집필한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국토의 위치는 시대가 바뀔에 따라 해방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요 내용은 반도,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위치의 우수성, 역사적 성쇠, 자유진영의 최전선), 국토의 위치 지도 등이다(표 1). 특히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에서 국토의 위치는 대한민국, 동아시아, 아시아 및 태평양, 세계, 지구본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국토의 위치 개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리적 위치

앞에서 고찰했듯이 개화기에는 지리교과서에 국토의 수리적 위치가 나타나지만, 일본 식민지기에는 일절 보이지 않는다. 해방 이후의 지리교과서에는 국토의 수리적 위치가 개화기에 비해 수정 및 보완되었고, 내용 기술도 다양해졌다. 현대 초기에 박노식(1950)과 이지호(1956)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자들은 지리교과서에 국토의 수리적 위치를 기술했으며,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의 북위와 동경, 그리고 4극에 대한 내용이다.

전후 중등학교 최초의 지리교과서는 당시 교사로 재직했던 정홍현 등(1946)의 『조선지리』이다. 이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는 국토의 수리적 위치가 극동 경북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57분, 극서 평북 미안도 서단 동경 124도 11분, 극남 제주도 남단 북위 33도 7분, 극북 함북 온성군 북단 북위 43도 1분 등과 같이 경위도와 4극이 함께 표시되었다. 이 내용을 개화기의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수리적 위치와 비교하면, 다소 현실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정확성은 결여되었다. 즉 극동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극남을 마라도가 아닌 제주도로 나타낸 것이다.

1940년대 후반 정홍현 등(1949)이 개정판에서 극동을 울릉도 독도로 수정하고, 극남을 제주도 대정면 마라도로 표시했으며, 같은 해에 노도양(1949)도 동일하게 기술함에 따라 이 시기부터 국토의 수리적 위치로서 4극은 올바르게 수정되었다. 그럼에도 박노식(1956)은 극남을 마라도 남서쪽 149km 거리에 있는 수중 암초 파랑도로 기술하여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4극에 대한 지역 명칭은 거의 정확해졌지만, 지역의 지점을 나타내는 도 분 초는 여전히 현재의 관점에서 부정확하다. 아마도 시대에 따른 측량 기술의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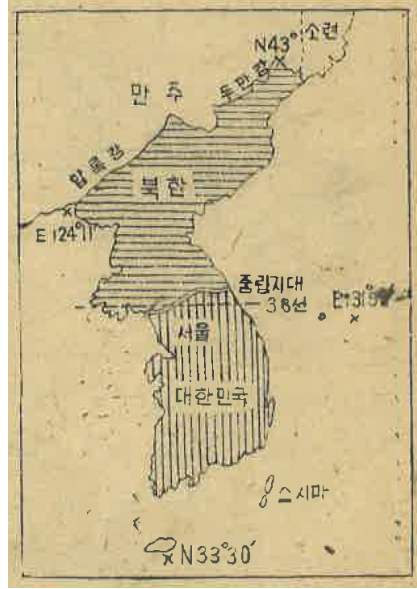


그림 7. 우리나라의 4극
자료: 강제호(1957)

운데 지리교과서에는 최초로 국토의 4극을 나타낸 지도가 등장했다(그림 7).

일본 식민지기와 달리 해방 이후의 지리교과서 집필자들이 수리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표시하려고 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영역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나아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이지(明治) 유신 이래 영토와 해양의 확대 정책으로 현재까지도 자국의 지리교과서에 수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전통이 없다. 한국은 다른 영역을 침탈하지도 않고, 침탈당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리교과서에 수리적 위치를 명확히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의 영역과 관련하여 극동의 독도가 그러하다. 다수의 지리교과서에서 국토의 위치 단원에는 독도의 수리적 위치가 간단하게 기술되었지만, 본문의 영남지방 단원, 산업 단원의 수산업 부분에는 독도를 반드시 지키도록 구체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1940년대 후반 노도양(1949)은 영남지방 단원에서 “이 섬의 영유(領有)에 관해서는 일본과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다”라고 비교적 가볍게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독도 논쟁이 치열했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간행

된 대부분의 검정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인이 우리의 해양과 독도에 침범할 경우에는 나포, 엄벌, 생명선, 봉쇄, 행동 제한, 미연의 방지, 멸공전 완수, 사수, 지킴이 등과 같은 단호하고 강경한 용어를 사용하여 반드시 독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태도 및 의식을 육성하도록 했다(심정보, 2019).

한편 국토의 수리적 위치로서 위도 및 경선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위도와 관련하여 정홍현 등(1949)·이부성(1950)은 온대계절풍 지대로서 사람 살기에 좋은 위치이며, 박노식(1957)은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여 인류 생활과 활동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고 인구가 조밀하다고 기술했다. 최홍준(1956)·이봉수(1956)·강재호(1957)는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여 세계의 문화국은 모두 온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도 온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세계적 문화국 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강대현·주재중(1956)은 한국은 살기 좋은 온대 지방에 위치하여 계절과 해가 바뀌는 것은 정신에 자극을 주어 생기와 흥미를 북돋아 준다고 서술했다. 이처럼 북반구의 중위도는 사람 살기에 좋은 곳으로 인구가 조밀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국이 위치한 곳이다. 따라서 우리 조상도 이곳에 자리를 잡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토의 위치를 탓하지 않고 문명국을 이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경선과 관련해서 강대현·주재중(1956)과 강재호(1957)는 표준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그림 7). 이들 교과서에 경선은 지구상에서 한 지점의 위치를 밝히며, 시간을 정하고, 달력을 만드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도를 그리거나 읽을 때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우리는 일본 중심의 동경 135°를 표준시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자주적 입장에서 동경 127°30'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표준시를 정확히 이해하여 통신을 할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 이용하도록 했다. 강대현·주재중(1956)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의 위치(그림 8) 지도는 조선총독부(1944)의 도쿄 중심의 대동아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학생들에게 황국의 대동아건설이라는 사명의 자각이 아닌, 국토의 경선과 표준시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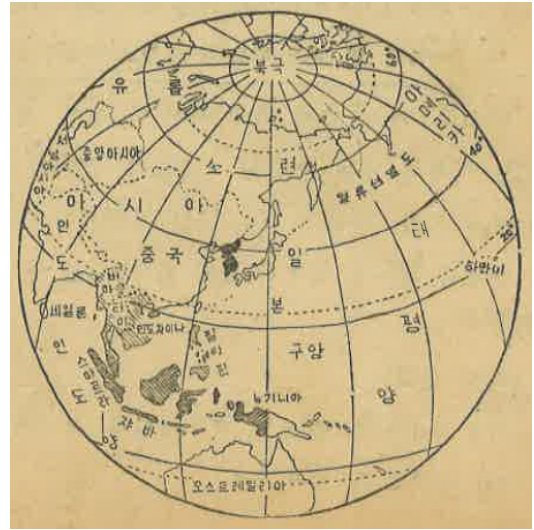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의 위치
자료: 강대현·주재중(1956)

2) 관계적 위치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국토의 위치는 해방 이전과 동일하게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대륙 및 해양의 상황을 기술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과의 관계적 위치는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정갑(1949)은 한반도 주변의 동서남북 국가를 언급하면서 관계적 위치라는 용어를 지리교과서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다수의 교과서 집필자들은 기능에 근거한 관계적 위치를 들었다. 최복현 등(1949)은 우리나라 위치의 특수성으로 반도적 위치, 육교적 위치, 중간적 위치를 언급했다. 그 외에 강대현·주재중(1956), 김상호(1956), 최홍준(1956), 강재호(1957), 박노식(1956) 등은 우리나라를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 일본을 잇는 다리와 같은 위치 즉 육교적 위치로 표현했다. 반면 육지수(1956)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 교과서에 사용된 육교적 위치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이 육교적 위치라는 말은 과거에 침략에 이바지한 바 큰 “지정학(地政學)”이라는 학문의 용어(用語)이다. 이것은 침략국이 어떤 나라를 침략할 때 그 통로(通路)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강력한 독립 국가로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그들의 침략의 통로로 삼을 수는 없

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굳센 현재 우리 나라를 통과하려는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육교적 위치라고 자칭하여서는 아니 된다(육지수, 195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요가와 겐요(豊川善暉, 1935)의 『조선향토지리』에 조선은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잔교(棧橋)와 같아 좋은 위치이며, 조선총독부(1944)의 『초등지리 제5학년』에 조선반도는 일본 본토와 대륙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아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기술되었다. 육지수(1956)는 과거 일본의 침략 시대에 사용되었던 육교적 위치라는 용어를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입장은 해방 이후 언론 기사에도 나타난다.¹¹⁾ 그는 후술하듯이 지리교과서 집필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가능한 긍정적인 내용, 국토의 우수성 등을 부각 시켰다.

해방 이후 한국인이 집필한 지리교과서에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적 위치는 해방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내용이 다양하게 기술되었다. 그것은 국토 위치의 우수성과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 역사적 성쇠, 자유진영의 최전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국토 위치의 우수성과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

해방 전후의 지리교과서에는 국토 위치의 중요성과 형상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의 시각에서 내용 기술 방식은 대조적이다. 현대 초기에 한국인이 집필한 지리교과서에서 국토의 위치를 육지수(1947b, 1950, 1956)와 최홍준(1956)은 좋은 위치, 강대현·주재중(1956)은 좋은 자리, 박노식(1957)과 이봉수(1956)는 우수한 위치, 장창균(1956)은 천혜의 지리적 위치 등과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들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반도로서 국토 위치의 우수성은 그림 9와 같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유롭게 넓은 대륙과 해양으로 무한히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지수(1947b)는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좋은 위치에 대해 가장 이른 시기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국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저자는 해방 직후 이 책을 1945년 9월 조선학술원의 위촉으로 집필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본문은 질문을 제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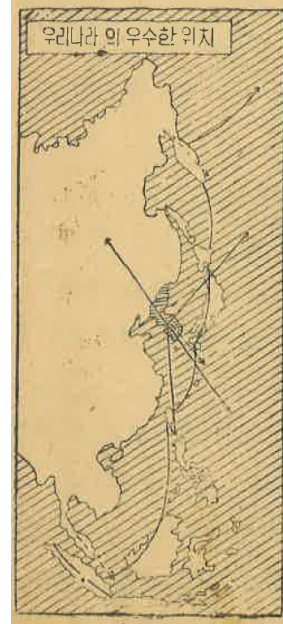


그림 9. 우리나라의 육교적 위치
자료: 박노식(1956)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제일장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떠한가?」 단원에 기술된 국토의 좋은 위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가 훌륭하고 좋다 하는 것은 면적으로만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되어 그 나라의 훌륭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지요?

여러분 연합국의 하나인 영국을 보시오 ... 그 나라가 지금 아메리카, 중국, 소련, 중국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아니한가요? ... 그 원인의 하나로 우리는 먼저 그 위치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위치는 신대륙발견 이후 소위 대서양시대에 참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었다. ...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가? ...

... 서쪽은 황해(黃海)이며 동쪽은 동조선해(東朝鮮海-日本海)이며 남쪽은 조선해에 면하고 있다. ... 남쪽의 부산(釜山), 여수(麗水)에서 남하(南下)하면 동지나해(東支那海)를 거쳐 대양(大洋)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대양이 어떤 인가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인 태평양(太平洋)이다. ... 우리는 자유롭게 어느 대양으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제이차대전(大戰) 후 태평양시대라고 하는 지

금 태평양에 이와같이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위치(位置)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외에 우리나라의 위치로 인한 선물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몬스-나(Monsoon) 권내(圈內)에 있는 것이다. ... 둘째는 일본열도(列島)가 우리나라 동남에 있는 것이다. ... (육지수, 1947b).

저자는 세계지도를 바라보면 중국, 소련, 미국과 같이 큰 나라도 있고, 모나코와 같이 작은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강대국은 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영국을 사례로 들었다. 비록 영국은 면적이 작지만, 대서양 시대에 좋은 위치를 활용하여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 외에도 온대에 위치한다는 것, 일본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한편 육지수(1947b)는 국토의 좋은 위치를 기술하면서 한반도의 형상을 언급하였다. 그는 1935년 도요가와 겐요(豊川善暉)의 『향토조선지리』에 나오는 토끼 형상의 한반도와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의 위치에 따른 형상을 기술했다.

우리는 지도로 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바라봅시다.

아시아주 동단(東端)에서 동남(東南)으로 떨어진 한 반도(半島)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반도를 노인(老人)이 서향(西向)하여 정좌(正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범(虎) 또는 토끼가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뿔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반도의 금후의 비약적(飛躍的) 발전을 예상(豫想)하면 범에 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범이 즉 우리나라이다. ... 이것은 금후 우리나라와 대륙과의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육지수, 1947b).

아시아 동단에서 동남으로 뻗은 한반도의 형상과 관련하여 교과서 집필자는 노인, 토끼, 호랑이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호랑이 형상임을 강조했다. 조선의 땅 모습에 대한 생각으로 중국을 향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노인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인식은 조선 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부터 중국과 친하게 지냈

다는 것이다.¹²⁾ 그리고 한반도의 토끼 형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방 이전의 중등학교 『향토조선지리』에 기술된 것으로 토끼는 나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에게 주입되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저자는 지리교육을 통해 그러한 부정적 사고를 바로잡으려 했다. 즉 저자는 학생들에게 국토의 위치 및 형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한반도를 대륙으로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 기상의 강인한 호랑이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국토는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역사적으로 대륙과의 관계가 깊고, 기후 조건이 좋고,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잡았다. 저자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부터 국가의 발전 여부는 이 위치를 잘 이용하느냐 잘못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역설했다(육지수, 1947b). 결국 저자는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학습자들의 태도 및 의식 형성의 일환으로 지리교과서 첫 단원에서 국토 위치의 장점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위치의 역사적 성쇠

국토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성쇠는 문교부(1948)의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4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1)』에 간략하게 제시되었으며,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다루졌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 국사 중의 기쁜 일, 자랑할 일, 부끄러운 일, 원통한 일도 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치가 가져오는 일이 많았다(노도양, 1949). 국토의 위치를 잘 이용하여 북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남쪽 해양 방면에 위력을 보인 적도 있다. 반면 우리의 국력이 약할 때에는 대륙과 해양의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아 시달림을 받기도 했다. 해방 이후의 지리교과서에는 한반도의 관계적 위치와 관련하여 역사적 성쇠가 여러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지도와 함께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되었다(그림 10).

역사적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대륙에 연결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대륙 여러 나라들의 성쇠가 있을 적마다 영향을 주었으니, 한(漢)나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수(隋) 당(唐)

첫째, 개화기의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의 위치이다.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집필한 최초의 지리교과서에는 수리적 위치,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국가와 바다 상황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이후 한국인이 집필한 여러 지리교과서에는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점차 상세해졌다. 당시 저자들은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 관련 지리지와 지리교과서 등을 참고해서 수리적 위치로서 위도와 경도, 4극 등을 나타냈지만, 현실과 비교하면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국토를 둘러싼 위치는 아시아 동단의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경계 및 토지 상황이 정태적으로 기술되었다.

둘째, 일본 식민지기에는 조선총독부와 민간이 지리교과서를 간행했다. 전 기간에 걸쳐 지리교과서에 수리적 위치가 기술되지 않은 것은 특이 사항이다. 한반도와 주변의 위치는 1930년대 전반까지는 개화기의 지리교과서와 유사하게 기술되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라 조선의 위치에 대한 기술 방식이 바뀌었다. 저자들은 종래와 동일하게 한반도와 주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언급함과 동시에 동태적으로 국토의 위치를 기술했다. 게다가 한반도의 형상을 나약한 토끼에 비유하여 은연중에 국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했으며, 전시 상황에서 한반도를 대륙전진기지로서 지위와 사명을 강조했다.

셋째, 해방 이후에는 종래 천황제 중심의 군국교육에서 민주 시민의 육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교과서 집필자들은 배타적인 우리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국토의 수리적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려고 했다. 관계적 위치는 해방 이전과 유사하게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경계 및 해양 상황을 정태적으로 기술했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동태적 측면에서 국토 위치의 우수성, 한반도의 형상을 호랑이에 비유하여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특히 위치의 역사적 성쇠로서 과거의 융성하고 불행했던 역사를 인식하고, 앞으로 분발하여 우리 국토가 세계에서 중심적 위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의 지리교과서에는 정치적 상황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한반도가 자유진영의 최전선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와 같이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국 학생들을 대

상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집필한 지리교과서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유사점은 국토의 위치를 한반도와 주변의 토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태적으로 기술하고, 정신 고양을 위해 국토 위치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차이점은 국토 위치의 동태적 기술과 관련하여 해방 이전에는 전시체제의 입장에서 국토 위치의 중요성과 한반도를 대륙전진기지로서 지위와 사명을 인식하고 태도를 형성하도록 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국토 위치의 우수성으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이해하고 태도의 형성을 지향한 것이다.

한 지방 한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의 값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며, 그 지방 혹은 그 나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 한국을 과거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의 변두리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활동 무대인 태평양과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상, 군사상,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이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자유 진영의 번영과 세계평화에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강대현·주재중, 1956). 현대 초기까지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상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기까지 축적된 다양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리교과서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토상은 응용되어 발전한다는 것이다.

주

-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를 가리키는 시기 표현으로 이진수·지상현(2020)은 초기 현대 지리학으로 불렸으며, 일본에서는 초기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日本社会教育学会編, 2012).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합의된 시기 명칭은 없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대 초기로 명명한다.
- 2) 예컨대 금향당서적주식회사(1893)가 간행한 『소학교용 외국 지리』에 수록된 조선왕국의 위치는 “조선은 일본해와 황해와의 사이에 돌출한 반도국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은 지나(支那)와 경계를 이루며, 장백산맥은 적량(脊梁)을 …”라고 기술되었다.
- 3) 예컨대 2011년 교육출판(教育出版)에서 발행한 중학교 사회의 지리적 분야에 기술된 일본의 위치는 “일본은 세계의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위도

와 경도를 사용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표시방법을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주위에 위치하는 나라들과 대륙이나 해양 등과의 관계에서 본 위치의 표시방법도 있습니다. 이 표시방법을 상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위치에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竹內裕一 外, 2011)이다. 비록 위도와 경도를 사용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일본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 4)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열도 주변의 섬들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1895년 센카쿠제도(釣魚台)를 비공개로 편입하는 등 1988년에는 도쿄 남서쪽 1740km 떨어진 태평양의 오키노토리라는 해상 암초를 콘크리트 작업해서 만든 인공섬으로 해상 영토를 확장했다.
- 5) 현재가 편집하고 학부에서 발간한 1899년의 『대한지지』는 일본인이 저술한 한국지지 도서 중에서 주로 마쓰모토 니키치(松本仁吉)의 『조선지지요략(朝鮮地誌要略)』과 고마쓰 메구루(小松運)의 『조선팔도지(朝鮮八道誌)』를 참고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장보용, 1970).
- 6) 1910년 8월 한일병합에 의해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은 폐지되고, 그 대신 조선으로 결정되었다. 일본 본토는 내지(内地)로 호칭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 조선, 대만, 가라후토(樺太)를 합해서 일본임을 주시시키도록 했다(내무부 학무국, 1910).
- 7) 유라시아의 지도를 보자.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 이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하나의 팔과 같이 조선반도가 돌출해 있다. 당시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륙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할 좋은 기지가 되고, 배후지를 갖지 않은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했다(西尾幹二 外, 2001).
- 8) 이 책의 산맥 부분에 “조선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한 마리의 토끼가 쓰시마를 뒤로해서 막 요동(遼東)을 향해 뛰려고 하는 형상인데, 동쪽에 면한(東面) 영흥만에서 서남의 강화만에 이르는 가선(假線)으로서 토끼의 머리(頭部)라고 하고, 이 목(頸) 이남을 남조선이라 하고, 이북을 북조선이라 한다. 남조선은 주로 반도부이며, 북조선은 대부분 대륙부가 되며, 남한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5도를 포함하고, 북한은 함경, 평안, 황해 3도를 포함하며, 그리고 이 남북 양부의 면적은 약간 서로 비슷하다”는 내용이다(矢津昌永, 1904).
- 9) 제1편 지문지리의 제4장 넓이(廣袤)에 “한국 지형의 윤곽은 마치 한 마리의 토끼가 막 북쪽을 향하여 뛰려고 하는 것과 닮았다”는 내용이다(田淵友彦, 1905). 그러나 이 책을 번역한 김건중(1907)의 『신편 대한지리』에는 이 부분이 제외되었다.
- 10) 조선총독부의 국민학교 규정 제3조에 국민과는 다른 교과와 함께 정치, 경제, 국방, 해양 등에 관한 사항의 교수에 유의하도록 했다(朝鮮總督府, 1941).
- 11)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육교적 역할을 많이 했다. 원래가 일본을 침략할 때에 제주도는 원의 병참기지가 되었고,

임진왜란도 육교적 입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청일전쟁도 육교적 입장으로 우리나라가 전지화(戰地化)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두 강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명도 신라가 당나라를 몰리치고 통일한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힘이 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가 38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육교적 위치에서 초래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양분되어 영속화하면 국민족과 그 생활 영역과의 긴밀한 결합이 분해되며, 국가의 생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패망의 제일보(第一步)가 되는 것이다(육지수, 1947a).

- 12)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卜居總論)」 산수 편에 “옛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노인형(老人形) 지세라고 하면서, 해좌(亥坐) 사향(巳向)이어서 서쪽으로 얼굴을 들어 중국에게 읍하고 있는 형상이므로 중국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였던”는 것이다(목수현, 2014).

참고문헌

- 강대현·주재중, 1956, 우리나라지리, 흥지사.
- 강재호, 1957, 중학교 사회생활과 우리 나라 지리, 문화당.
- 권은주·김기남, 2023, “지리 교과 지식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위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3), 1-18.
- 김건중 역, 1907, 신편 대한지리, 보성관.
- 김상호, 1956, 중학교 사회생활과 우리 나라 지리, 일조각.
- 노도양, 1949,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지리부분, 탐구당.
- 노도양, 1956,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지리부분, 탐구당.
- 내무부 학무국, 1910, 구 학부 편찬 보통학교용 교과서 및 지구 부검정 및 인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수상주의 및 지구 정정표.
- 대동서관, 1908, 대한지리교과서, 보문사.
- 목수현, 2014, “국토의 시각적 표상과 애국 계몽의 지리학-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7, 13-39.
- 문교부, 1946,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 (4), 군정청 문교부.
- 문교부, 1948, 사회생활과 4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문교부, 1955, 국민학교 교과과정, 문교부.
- 문교부, 1956, 사회생활 4-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박노식, 1956, 중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지리, 동국문화사.
- 박문서관편집부, 1908, 문답 대한신지지, 박문서관.
- 심정보, 2015, “태평양전쟁기의 일본 지정학 사상과 국민학교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1-21.

- 심정보, 201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31(1), 149-181.
- 안송산·박관섭, 1956, 우리 나라 지리, 서울출판사.
- 안중화, 1910, 초등대한지리, 광덕서관.
- 육지수, 1947a, “運命의 陸橋의 朝鮮地位”, 경향신문.
- 육지수, 1947b, 우리나라, 동지사.
- 육지수, 1950,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지리), 동지사.
- 육지수, 1956, 우리 나라 지리, 장왕사.
- 이봉수, 1956, 새로운 우리나라지리, 일한도서출판사.
- 이부성, 1950,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지리, 백영사.
- 이지호, 1956, 한국지리, 을유문화사.
- 이진수·지상현, 2022, “포스트식민 한국에서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의 전유-초기 현대 지리학에서 ‘한국의 위치’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57(5), 437-450.
- 임덕순, 1997, 정치지리학 원리, 법문사.
- 장보웅,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1), 41-58.
- 장지연, 1907, 대한신지리, 한양서관.
- 장창균, 1957, 중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지리, 대동문화사.
- 전라북도학무과, 1946, 초등지리교본, 임시교재연구회.
- 정 갑, 1949,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을유문화사.
- 정인호, 1909a, 최신 초등대한지리.
- 정인호, 1909b, 최신 고등대한지리.
- 정홍현·이기섭·이부성, 1946, 조선지리, 정음사.
- 정홍현·이기섭·이부성, 1949, 사회생활과지리부 우리나라, 정음사.
- 조종만, 1907, 초등 대한디지, 한양서관.
- 최복현, 1956, 국토지리, 민중서관.
- 최복현·이지호·김상호, 1949,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지리, 박문출판사.
- 최홍준, 1956, 중등지리 (1) 우리나라, 박문출판사.
- 학부, 1907,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대일본도서주식회사 인쇄.
- 학부편집국, 1895, 조선지리, 학부편집국.
- 현재, 1899, 대한지리, 광문사.
- 호머 힐버트, 1891, 스민필지.
- 金港堂書籍株式會社, 1893, 小學校用 外國地理, 金港堂書籍株式會社.
- 隈江信光, 1941, “國民科地理教育の實踐”, 教育研究, 523, 85-91.
- 竹内裕一·笹山晴生·中村達也 外 37名, 2011, 中学社会 地理 地域にまなぶ, 教育出版株式會社.
- 田淵友彦, 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 朝鮮總督府, 1914, 日本地理教科書, 總務局印刷所.
- 朝鮮總督府, 1923, 普通學校地理補充教材,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32, 初等地理書 卷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41, “國民學校令及び國民學校規程”, 朝鮮總督府官報, 4254, 255-264.
- 朝鮮總督府, 1944, 初等地理 第五學年,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豊川善擘, 1935, 朝鮮郷土地理, 日韓書房.
- 西尾幹二 外 13名, 2001,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日本社会科教育学会編, 2012, 社会科教育事典, ぎょうせい.
- 林潤平, 2020, 自然愛をめぐる教育の近代日本, 世織書房.
- 實文館編輯所編纂, 1910, 尋常小學樺太滿洲朝鮮地理 附 外國地理大要, 實文館.
- 文部省, 1943, 教師用 初等科地理上, 東京書籍株式會社.
- 矢津昌永, 1904, 韓國地理, 九善.
- 横山昭市, 2014, 國際關係の政治地理学, 古今書院.

접 수 일 : 2024. 02. 08

수 정 일 : 2024. 02. 27

게재확정일 : 2024. 02. 27

교신: 심정보, 2867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부교수 (ktxgut@naver.com, 043-299-8360)

Correspondence: Jeongbo Shim, ktxgut@naver.com